



담당부서 : 사법정책실
김미경 심의관(3480-1375)
공보관실 : ☎ 3480-1451



법원, 장애인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사법지원 제공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그간 사법부의 계속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이번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각급 법원에 배포함(7. 23.경 각급 법원에 배포할 예정임)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정신적 장애 등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세하고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 형사상 피고인 또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서류접수 시 또는 소송절차 등에서 직접 말로 장애유형과 정도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주면, 재판부는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하여 각 소송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휠체어, 보청기,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사용, 수화통역, 문자통역뿐 아니라 법원공무원 등이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제공함

-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유형별로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센터의 재판지원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법지원 신청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올해 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각급 법원 민원인용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맞아 각급 법원에 음성증폭기와 독서확대기를 추가 배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행 후 부족한 점과 다양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 사법부는 이러한 제도적,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하여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 보장'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1 추진 배경

- 사법부는 장애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
-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보장
 -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이고,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역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함
 - 그러므로 장애인이 소송 등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됨

□ 장애인 사법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법접근성 제고

○ 법원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헌법적 기본이념이 재판절차에 투영될 수 있도록 청사 접근 시설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실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하여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판사들이 그동안 시행하여 온 장애인 사법지원의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

○ 이로써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장애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사법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한 단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②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주요 내용

○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경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의 각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사법지원을 다루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

－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등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증인, 배심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법지원을 제공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부 또는 장애의 원인이나 지속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절차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제공함

□ 총설

○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등 각 장애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예) 시각장애인은 전맹인 경우와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맹인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2011년 기준 5.2%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화면낭독프로그램¹⁾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전자파일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됨(가이드라인 27쪽).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시각장애인은 글자나 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글자색이나 배경색, 밝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보여주는 독서확대기 등이 필요함(가이드라인 29쪽)

□ 민사재판절차

○ ①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단계, ② 제1회 기일 전 단계, ③ 각 재판기일 단계, ④ 판결 선고 단계, ⑤ 화해·조정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지원하여야 할 편의제공의 내용 등을 살펴봄

－ 예) 청각장애인이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이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재판 내용을 수화로 통역하게 하거나(가이드라인 61쪽 이하), 전자법정에서는 속기사가 문답내용을 속기하고 속기된 내용을 법정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크린에 띄워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자통역(가이드라인 69쪽)을 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써서 제출하거나, 소송서류 접수 시 또는 법정 등에서 말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 이에 따라 각 재판부에서 사법지원을 결정하여 제공함(가이드라인 44쪽 이하)

○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장애 유형별로 제시함으로써 신체적·심리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에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예) 뇌병변장애인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첫마디를 발음하는데 시간이 걸

1)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문자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

리므로 말할 기회를 준 후에는 말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여야 하고(가이드라인 72쪽), 시각장애인에게는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가이드라인 74쪽), 청각장애인에게 말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천천히 발음하면 장애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가이드라인 75쪽)을 설명함

□ 형사재판절차

○ ① 공소제기 전 단계, ②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 ③ 공판기일의 심리 단계, ④ 판결 선고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장애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도 다루고 있음

－ 공소제기 전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체포 적부심 단계에서도 수화통역 등 사법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가이드라인 101쪽 이하)

○ 장애인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및 장애인 관련자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할 경우 및 장애인 관련자 등의 소송 참여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그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질문 형식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는 등(가이드라인 131쪽) 각 증거 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의 요약본을 별지로 첨부함

③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장애인 사법지원 페이지 신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센터의 재판지원 중 ‘장애인 사법지원’을 신설하여 장애인 사법지원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및 ‘통역 안내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④ 장애인 지원 물품 배포

○ 법원 청사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물 내 출입문이나 통로, 화장실, 법정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따라 휠체어, 돋보기, 화상전화기 등의 지원 물품을 갖추고, 법원에서 생

성하는 문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용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하여 제공하고 있음

○ 대법원은 올해 초 시각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민원인용 컴퓨터에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

○ 이에 더하여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독서확대기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를 배포하였음

○ 이러한 지원 물품의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배포할 계획

⑤ 법원의 계속적인 노력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에 앞서 지난 6월 사법연수원에 서 실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인, 지체장애인 등이 참여하여 판사들과 함께 모의재판을 실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음

○ 가이드라인 발간이 첫 작업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나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법원에서는 제도적,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확고하고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끝]

장애 유형별 특성, 유의사항 및 지원방안(가이드라인 요약)

유형	특 성	유의사항	지원방안	참조 (쪽)
지 체 · 뇌 병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골격, 근육, 신경 손상으 로 인한 운동장애. 통상 지적 능력 저하는 동반하지 않음 •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신 체기능장애. 지적 능력 저하가 있 는 경우도 있음 • 언어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부드러운 표정 • 뇌병변장애인은 대화의 첫 단어를 발음하기가 어 려우므로 말할 때까지 기 다려야 하고 다그쳐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활동 보조 • 휠체어 이용 가능 경로 • 수화통역, 의사소통 보조 • 재판 중 휴식시간, 휴식공 간 제공 	23 72 91
시 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맹 / 시력 저하 • 점자해독율 5.2%에 불과 ⇒ 다양 한 지원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대화 시작 • 소리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말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화면낭독프로그램 • 확대경 또는 확대독서기 • 실물화상기의 확대기능 • 전자파일 제출 요구(민소 규칙 48조 2항) 	25 54 73 115 120 130
청 각 · 언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력 상실 / 청력 저하 • 말, 수화, 구화, 필담, 몸짓 등 다양 한 의사소통 방안이 있음 • 농식 수화를 주로 사용하므로 문법 식 수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정면으로 바라 보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천천히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증폭기 지원 • 문법식·농식 수화, 문자통 역(병행 가능) • 문자통역 : 속기화면을 법 정스크린으로 공유 • 대동통역인에 대하여 상 대방 이의 없고 수화능력 이 있는 경우 허용 	30 59 74 116 120
정 신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장애: 지적능력 발달 불완전, 사회적 행동 수준 낮음 • 발달(자폐성)장애: 반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형성 어려움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 감정, 행동 조절 어 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질문 사용 • 단답형, 암시형, 유도형 질문 삼가 • 쉽고 단순한 용어 사용 •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 파악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능력 유무 판단 • 의사소통 보조 	35 47 75 83 91 117 131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일 진행 시간은 충분히 확보, 대기시간은 최소화 •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법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피해서 기일 지정 • 장애인관련자의 동석 등 보조활동 및 보조견 출입 허용 • 소송구조 적극 활용,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 • 기다림과 인내 ⇒ (예시) 답변을 다그치거나, 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 어렵다고 들어보려고 하 지도 않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해서는 안 됨 			56 58 98 99 108